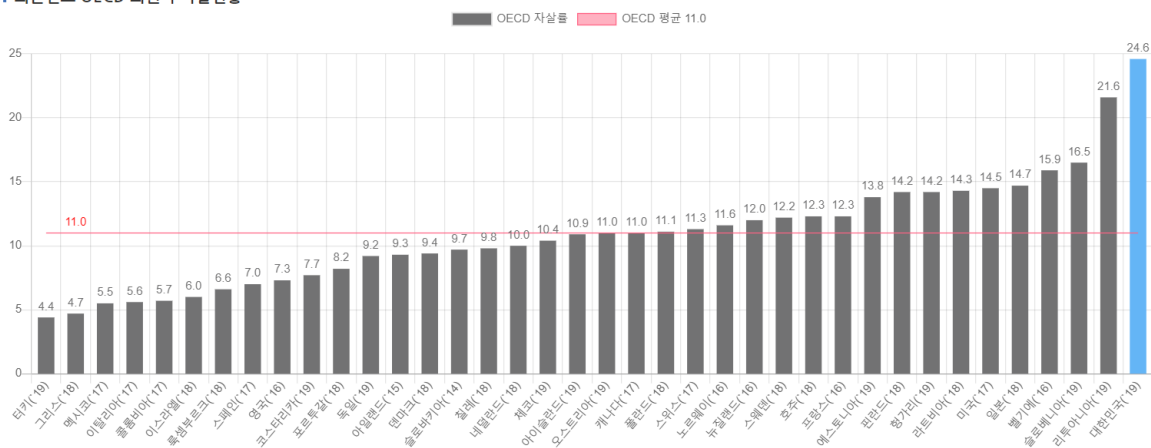


1. 한글로 작성할 경우, 문단을 양쪽 정렬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론-본론-결론'으로 재구성할 것,
3.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4.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5. 제목 수정???
6. 본론의 핵심 내용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음.
7.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임.
8. 만일 그렇다면, 많은 자살이 사회적 타살임을 보이는 사실적 정보에 의거한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논증이 필요함.
9.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등의 논의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10. 이와 같은 점에 의거하여, 본론을 다시 작성할 것을 권함.

자살은 살인 인가?

202110823임아현

Ⅰ 최근년도 OECD 회원국 자살현황



OECD국가 자살률을 보면 한국의 이름은 순위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국제 자살통계에 따르면, 최근 년도엔 한국이 24.6명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수치 11.0의 두 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국가별로 이렇게 자살률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 따라 자살률은 변화를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살률이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 죽고 싶어하는 생물은 없다.

i. 인간의 생존 본능

죽고 싶어하는 생물은 없다. 모든 생물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인간도 생물의 일종이므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안온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행위조차도 결국엔 삶을 살고 싶도록 하는 장치다. 우리는 매 순간 삶에 대한 소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 본능 중 하나로, 인간에게는 타인과 연대하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명하고 오래 된 문구다. 그 만큼 인간은 타인과의 연대를 중요시 여긴다. 그런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사회이다.

ii. 사회는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타인의 지지를 받아 홀로 극복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간다. 연대의 목적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의 결정체인 사회의 목적 또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지를 제공받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날 사회라 하면 국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국가는 각종 위협에서 개인의 삶을 보호한다. 법으로 타인이 자신을 해칠 수 없게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국가로부터 당연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신체의 안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사회적인 욕구 충족도 중요하다. 분명 이전에는 당장의 삶에 직결되는 신체의 안위에 중요성이 집중되었지만,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의식주가 비교적 당연하게 보편화 되면서 사회적인 욕구가 더 중요시되었다. 사람들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엄청난 위협감을 느낀다. 사회는 삶을 이어가는데 지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타인과 연대하고자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

니라 동물에게서 또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가 보호한다는 것은, 신체의 안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삶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i. 사람은 왜 죽을까?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다면, 사람들은 고난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할지 언정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잘못된 사회가 사람을 죽인다. 그럼 잘못된 사회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회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다.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것이므로, 사회는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ii. 누가 죽였는가?

자살하는 사람은 누가 죽인 것일까? 순수하게 죽고 싶은 것이 소망인 사람은 없다. 자살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 자살은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 죽게 만든 원인이다. 방아쇠는 자살하는 사람이 당겼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그 사람의 의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살로 죽어 나가는 이들은 대부분 좌절을 겪는다. 단순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당장 죽으려 드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 불합리한 사회가 그 사람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막는다. 그로 인해 사람은 자신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좌절한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으리라 여기다 끝내 몇몇 사람들은 죽음을 택하고 만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비슷한 상황에서 버틴 사람도 존재하는데 나약하게 죽어버린 사람을 손가락질해야 하는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문장에 본능적으로 거북한 감상을 받았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단단한 사람은 가까스로 버틴 것이지, 이 사회가 옳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불의에 익숙해지고 버티게 만드는 것은 미덕이 아닌 폭력이다. 사회는 약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약자도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고 약속한 것이 사회이다. 이 문장과 같은 생각의 사회는 사회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어떤 사회가 사람을 죽일 까?

i. 소외받는 계층이 많은 사회일수록 더 많이 죽는다.

어떤 사회가 사람을 죽게 만들까? 자살은 소외받는 계층에서 발생하기 쉽다. 특정 계층을 구분짓는 구분선이 진해질수록 불평등은 올라간다. 소외받는 계층은 보편적으로 겪는 절대적 불평등

이외의 상대적인 불평등을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상대적 불평등은 수치심, 좌절 등의 감정을 야기하며, 자살률을 높인다. 따라서 사회에 소외받는 계층이 확대될수록 자살률도 올라간다.

낮은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자살률을 높인다. 이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된 계층이다. 공공사회지출이 낮으면 사회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른 위기에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자살률이 올라간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2019년 기준 12.2%로, OECD 평균(20.0%)보다도 확연히 낮은 수치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라는 최하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낮은 공공사회지출이 유지되는 이상, 소외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살률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보수는 경제에 약하다.

자살의 요인은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생물은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사회는 자살률을 높인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사회 환경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한국의 정치문화 특성상, 흔들리는 사회 환경에 끊임 없이 적응해 나가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높여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자살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보수당이 집권하거나 오래 집권할 경우 자살률은 올라간다. 왜 그럴까? 제임스 길리건의 말에 따르면, 보수당의 문제는 경제이다. 흔히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하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공화당 집권기의 실업률 누적 증가분은 27.3%, 민주당의 누적 감소분은 26.5%로 나타났고, 공화당 정부의 누적 불황기는 246개월, 민주당 정부는 86개월이었다. 공화당은 경제 불평등을 높인다. 따라서 공화당 집권 기간이 늘어날수록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iii.우리나라는 보수세력에 우호적이다.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에 우호적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증부세)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거나, 의견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움을 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부세 징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위 몇 퍼센트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사람. 즉, ‘부자세’에 속하는 세금이다. 징수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토록 반대의 기색을 내비치는 것은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하고자 보수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변화를 바래 진보를 지지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자 친화적인’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낮은 사회공공지출 때문이다. 사회공공지출이 낮으면 진보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났을 때 따르는 위험에서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임에도 변화에 따르는 위험성을 감수할 여

력이 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변화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거나 극히 조심스러운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세력은 정책에 있어 보수세력보다 엄격한 잣대를 받게 되고, 이러한 까닭으로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세력은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무한경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보수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연대의식을 취약하게 만들고, '독식 문화'로 인해 갑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유연함 추구 목적으로 정리하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을의 입장에 있는 계층은 불안정한 사회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자살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공공사회지출이 높게 나타난다. 사회변화를 추구하려면 먼저 사회변화에 따른 위험에서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경을 제공하는 사회. 즉, 사회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사회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는 극히 낮은 공공사회지출을 늘리고, 부당한 것에 버티는 문화를 지양하며 불평등에 자유로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와 사회배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도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참고문헌

- 중앙자살예방센터(OECD국제 자살통계)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
- 위험한 정치인 - 제임스 길리건
- 김민영. "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서울
- 박유진. "사회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 김왕배(Kim Wang-bae). "자살과 해체사회." 한국학 33.2 (2010): 195-224.